

지역 문화를 활용한 단기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최 중 숙(안동대학교)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 문화를 활용하여 단기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이에 필요한 한국어를 교육하는 단기 한국어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는 COVID 19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가 이전의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보다 단기로 한국을 즐기고 싶어하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반영하여 이들에게 맞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단기 한국어교육 과정의 내용과 시간에 대한 의견과 학습 주제와 체험 활동에 대한 의견, 원하는 기대 효과, 그리고 방문하고 싶은 지역과 이유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동 지역의 전통과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단기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문화 체험 현장과 상황에 중점을 두고 활용 가능한 한국어 수업을 설계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활용한 단기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지역 문화 체험 중심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핵심어: 단기 한국어교육, 지역 문화, 문화 체험, 안동 문화, 수업 설계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지역의 문화를 활용하여 단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체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적인 한국어 학습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 단기로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안동 지역의 유형과 무형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문화 체험 학습을 설계하고, 이를 한국어 언어 지식을 가르치는 교실 학습과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언어 지식 중심의 한국 문화교육에서 탈피하여 체험 중심의 한국 문화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나아가 활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COVID 19를 겪으면서 감소했던 한국 방문 외국인이 한류의 인기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으며 예전의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과는 또 다른 목적으로 외국인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취업을 위한 외국인 입국자가 33.4%로 가장 많았고 유학이나 일반연구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은 21.5%, 단기 외국인 입국자가 21.4%를 차지하여 단기 체류 입국자가 유학 등을 위한 입국자와 비슷한 구성을 나타냈다. 기존의 높은 비율을 보이던 영주(永住)나 결혼이민 등은 12.7%에 불과했다.¹⁾ 이처럼 2021년과 비교하여 단기 체류 외국인이 279.3%나 증가한 것을 보면 기존의 결혼이민과 유학생 중심의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이유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기 입국자의 경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지만 목적과 관계없이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겪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안선영(2014:50)에 의하면 가장 불편한 것은 언어 문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장기 체류 유학생 중심의 한국어 과정과 함께 다양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교육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를 교육하는 언어 지

1) 통계청, 2022년 국제인구이동통계

식 교육이 주요 내용이고 한국 문화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 낮은 빈도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안동 지역의 전통과 생활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체험 중심의 단기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초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단기 체류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현황 분석과 교수요목 설계, 교육 과정 개발 및 비교, 교재 개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박선옥 외(2011)는 단기과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습자의 요구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운용이 가능한 단기과정 교수요목을 설계하였다. 박소연(2016)은 가톨릭대학교 일본인 대상 단기과정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참가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IPA라는 중요도-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단기 연수 프로그램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신용재(2008)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단기과정은 듣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의사소통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숙영(2002)은 단기 한국어 연수 학습자들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단기 한국어 연수 과정의 특징을 밝히고 효과적인 단기 한국어 연수 과정 개발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해경(2006)은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기과정의 문화 수업이 현장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 단기과정 현황을 살펴보고 문화수업 교수요목 구성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여훈·정희정(2020)은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단기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교육 목표, 교수요목 및 교수법, 교재, 평가, 문화 체험 활동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따라 단기 한국어교육 과정 모형에 대해 제안하였다. 최재민(2017)은 한국어 단기 교육 과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3주 정도의 문화 체험과 연계한 한국어 단기 교육 과정에 적합한 교육 과정과 교재를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단기 체류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 능

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단기 한국어교육 과정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 문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에서는 김문기·최경완(2021)이 지역 문화 자료를 통한 한국 문화의 교수-학습을 위한 단원을 개발하였고, 경주 지역 석굴암을 대상으로 실제 단원을 구성하였다. 박정근(2021)은 한국 문화교육 범주에서 지역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살피고 강릉 단오제를 중심으로 유학생에게 지역 문화를 교육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안희은(2022)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산의 지역 문화를 활용하여 구성주의에 기반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그 실제 및 모형을 제시하였다. 전은주(2013)는 한국어교육 환경으로서 공간의 교육적 의미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로컬리티 개념을 적용한 교육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로컬리티를 반영한 교수-학습의 예를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의 수준에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차윤정(2019)은 부산 지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부산 지역의 역사 문화를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수모형을 제시하고, 15주 교수계획을 제시하였다. 지역 문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전학 중심의 지역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지역문화 학습에서 지역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문화체험 중심의 한국어교육 연구에서는 김성숙(2023)이 한국 문화 체험은 한국이라는 선망의 시공간에 있음으로 인해 설레는 경험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현대 대중문화에 편중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문화 및 문화 체험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손다정(2009)은 한국어교육을 위한 현장 체험 중심의 문화 교재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그 실재를 제시하였다.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발되는 교재는 실제 자료를 중심으로 실제 체험을 지향하는 특징을 가지며, 이로 인해 학습자에게 한국어 학습 동기를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현장에서 바로 학습한 내용을 사용하면서 의미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안기정·권순희(2020)는 한국 문화교육이 다양한 목적을 반영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어 교재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지혜(2010)는 직접적인 문화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 체험 학습을 통해 한국 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문화교육을 통하여 효과적인 한국어 수업을 하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문화에 대한 중요성, 문화에 대한 학습이 언어 학습에 미치는 유의미성 등 장기적 수준의 문화교육에 대한 논의는 축적되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용 방안은 다소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단기 교육 과정에 대한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와 구별된다.

3. 현행 단기 한국어교육 과정

단기 한국어교육 과정은 정규과정과 대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정규 한국어과정 사이에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심화학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다. 여기에서 ‘단기’라고 하는 기간은 3주에서 6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1. 현행 단기 한국어 교육의 특징

단기 한국어 교육 과정은 정규과정과는 구성과 내용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보통 정규과정의 경우 한 학기에 20주 총 400시간의 한국어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단기 한국어교육 과정은 보통 3주 이내 60시간 이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6주 이내 100시간 수업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기 한국어 과정은 주로 집중과정과 온라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기간에 한국어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강좌가 많다. 오전 4시간은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되고, 오후에는 2시간 정도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선택 사항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정규과정과 마찬가지로 단기 한국어 과정도 한국어 학습에 비해서 한국 문화 체험의 비중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기 한국어 과정의 수업도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정규과정의 교재와 내용을 시간에 맞게 구성한 경우가 많고 한국어 언어 지식 수업의 심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전 세계에서 K-문화를 접하는 것이 일상이 된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언어 지식 이외의 다양한 목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단기 한국어 과정이 필요하다. 즉, 한국어 학습만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정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장명주(2008:21)에 의하면 실제로 단기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단기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순수하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며, 목표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그 체험 속에서 직접 목표어를 말하여 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하였다.²⁾ 그러나 이러한 단기 한국어교육 과정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국어 과정과 차별되는 특별한 한국어 과정이 개설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 있는 한국어교육 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단기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3.2. 현행 단기 한국어교육 과정의 구성

기존의 단기 한국어 과정 수업은 기초적인 초급 한국어 즉, 한글 교육부터 시작하여 인사와 자기소개, 물건 사기, 교통, 주문, 예약 등 실제로 한국 문화를 접할 때 필요한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수업 시간은 오전 3~4시간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문화 체험은 오후에 2~3시간을 기

2) 장명주(2008), 단기과정 학습자를 위한 초급 한국어 교재 구성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쪽

준으로 한국어 수업과는 연관 없이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기존의 단기 한국어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수업과 한국 문화 체험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소와 내용을 구성하였다. 단기 한국어교육 과정은 보통 기존의 시수와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하고, 한국어 언어 지식 교육(이하 한국어 수업)의 경우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말하기와 듣기, 읽기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체험 현장 중심의 한국어 수업으로 구성하고, 체험 현장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포함한 곳으로 구성한다. 또한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되 한국어 능력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문화 체험 수업도 한국어 수업 수준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관심은 지역 중심의 한국 문화 체험과 한국어 수업의 연결이라는 점이다. 오전 수업에서 다루어진 여러 가지 표현과 어휘들을 실제로 오후의 문화 체험 활동에서 사용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3. 현행 단기 한국어 교육과 지역문화

지금까지의 한국어교육은 정규 한국어 과정을 비롯하여 단기 한국어 과정에서도 지역의 문화를 활용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지역을 소외시키는 이러한 환경은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그러나 최근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지역의 문화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바닷가에 있는 작은 의자에서 BTS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후 한국인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찾아가는 명소가 된 것처럼 지역에 있는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 등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물론 현대 문화만을 한국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통문화 측면에서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는 지역의 문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과 홍보가 뒷받침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극복될 것이라 확신한다.

4. 단기 한국어과정에 대한 학습자 요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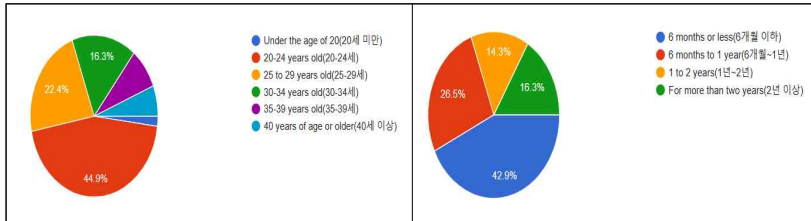
설문조사는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단기 한국어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을 전제로 단기 한국어 과정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모국에서 한국어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학문 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들이다. 먼저 설문 대상의 기본 사항과 단기 한국어 과정에 대한 참여 의사, 그리고 원하는 체류 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하고 싶은 일, 한국어 학습 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단기 한국어 과정의 학습 주제와 체험 활동에 대한 의견으로 배우고 싶은 주제, 방문하고 싶은 장소, 체험하고 싶은 활동, 그리고 단기 한국어 과정에서 원하는 기대 효과를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싶은 지역과 이유를 알아보았는데 이는 지역의 한국문화에 대한 요구를 살펴봄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의 수준과 편중된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지역에서도 한국 문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타진해 볼 수 있는 문항으로 보았다.

4.1. 학습자의 인적 사항과 한국어 학습 기간

먼저 인적 사항은 이메일, 국적, 대상자의 모국어, 성별, 나이, 현재 살고 있는 나라, 한국어를 배운 기간으로 구성하였다. 국적은 중국이 41명으로 대다수이고 브루나이는 8명이다. 사용하는 모국어는 중국어, 브루나이어, 말레이어, 영어 등이었는데 중국어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어 3명, 말레이 영어 2명, 브루나이어 2명 등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14명, 여자가 35명이었다. 응답자의 나이는 20~24세가 22명 44.9%로 가장 많았고 25~29세가 11명으로 22.4%, 30~34세가 8명으로 16.3%, 그리고 35~39세가 4명으로 8%, 40세 이상이 4명으로 6.1%, 20세 미만이 1명으로 2% 순이었다. 거주하는 지역은 중국이 41명으로 83.7%, 브루나이 7명으로 14.2%였다. 한국어 학습 기간은 6개월 이하가 21명으로 42.9%, 6개월에서 1년이 13명으로 26.5%, 2년 이상이 8명으로 16.3%, 1년에서 2년

사이가 7명으로 14.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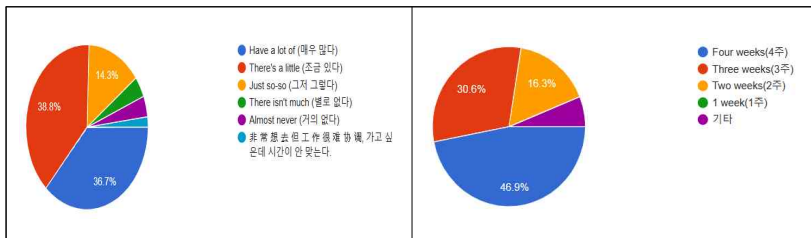
<표 1> 응답자의 나이와 학습 기간



4.2. 단기 한국어 과정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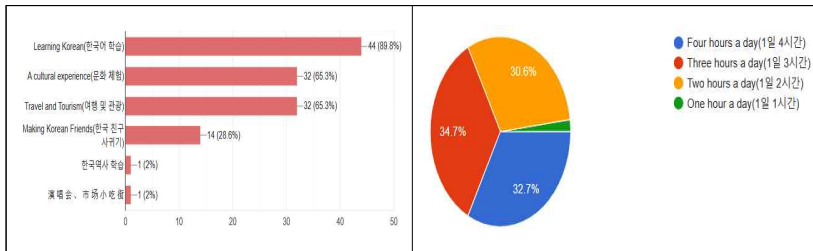
단기 한국어 과정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사항에서는 참가 의향, 원하는 체류 기간, 한국 체류시 희망하는 경험, 한국어 학습 기간을 조사하였다. 먼저 참가 의향에 대한 응답으로는 ‘조금 있다’가 19명으로 38.8%, ‘매우 많다’가 18명으로 36.7%, ‘그저 그렇다’가 7명으로 14.3%, ‘별로 없다’ 2명, ‘거의 없다’가 2명이었고 ‘가고 싶는데 시간이 안 맞는다’가 1명이었다. 이를 통해 참가 의향은 75.5%로 적극적인 참가 의사가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체류 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4주가 23명으로 46.9%, 3주가 16명으로 30.6%, 2주가 8명으로 16.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는 기존의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 한국어 과정이 3주나 4주로 구성되는 것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었다.

<표 2> 응답자의 체류 의사와 원하는 체류 기간



다음으로 한국에 체류할 때 원하는 경험에 대한 복수 응답에서는 한국어 학습이 44명으로 89.8%를 차지했다. 다음은 문화 체험과 여행 및 관광이 동일하게 32명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한국 친구 사귀기가 14명, 한국 역사 학습과 공연 시장 경험이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 학습 시간에 대해서는 1일 3시간이 17명으로 34.7%, 1일 4시간이 16명으로 32.7%, 1일 2시간이 15명으로 30.6%로 나타났고 1일 1시간도 1명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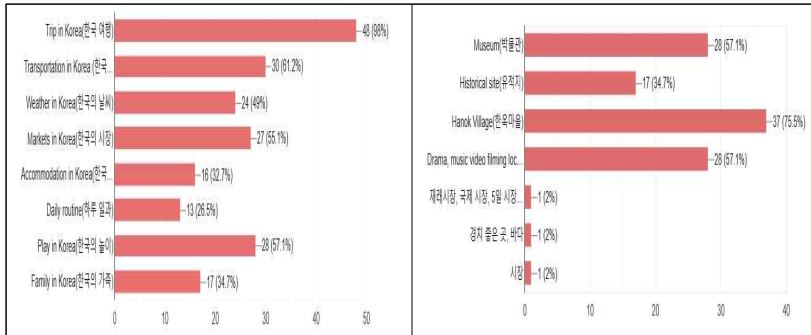
<표 3> 원하는 활동과 한국어 학습 시간



4.3. 배우고 싶은 주제와 방문하고 싶은 장소

단기 한국어 과정에서의 학습 주제와 체험 활동에 대한 질문에서는 희망하는 주제와 방문을 희망하는 장소, 희망하는 체험 활동, 그리고 단기 한국어 과정에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4> 배우고 싶은 주제와 방문하고 싶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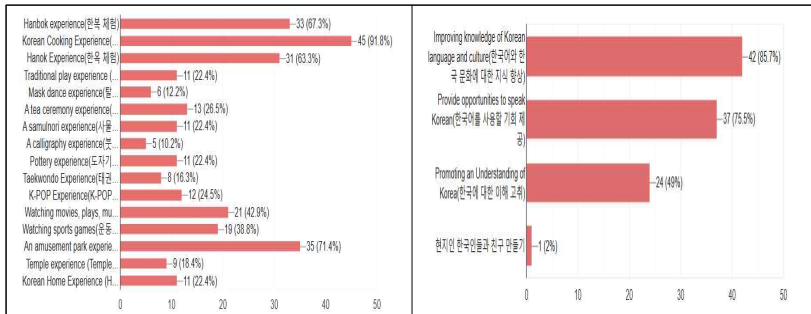
먼저 희망하는 주제에 대한 복수 응답은 한국 여행이 48명, 한국의 교통 30명, 한국의 놀이 28명, 한국의 시장 27명, 한국의 날씨 24명, 한국의 가족 17명, 한국의 숙박 16명, 하루일과 13명 순이었다. 다음으로 방문을 희망하는 장소에 대한 복수 응답에는 한옥마을이 37명, 박물관과 드라마 뮤직비디오 촬영지가 동일하게 28명, 유적지가 17명이었고 기타 의견으로 재래시장, 국제시장, 5일장, 경치 좋은 곳, 바다 등의 기타 의견이 있었다.

4.4. 원하는 문화 체험과 기대 효과

한국 체류 시 희망하는 문화 체험 활동은 한국 요리 체험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놀이공원 체험이 35명, 한복 체험이 33명, 한옥 체험이 31명, 연극 영화 뮤지컬 관람이 21명, 운동 경기 관람이 19명, 다도 체험이 13명, K-POP 체험이 12명, 전통놀이 체험과 사물놀이 체험, 도자기 체험, 한국 가정 체험이 각각 11명, 사찰 체험이 9명, 태권도 체험이 8명, 탈춤 체험이 6명, 붓글씨 체험이 5명 순이었다.

단기 한국어 과정에서 바라는 기대 효과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향상이 42명,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 제공이 37명, 한국에 대한 이해 고취가 24명, 현지인 한국인 친구 만들기가 1명이었다.

<표 5> 원하는 문화 체험과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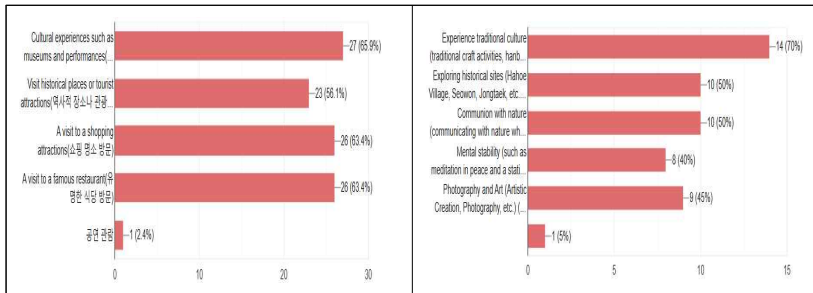
4.5. 여행이나 관광할 때 선호하는 지역과 그 이유

한국의 여러 지역 중에서 여행이나 관광을 하고 싶은 지역과 그 이유에 대한 설문에 대해 서울, 부산 등 대도시가 38명, 77.6%로 압도적이었고 다음으로 안동, 경주 등 전통 문화도시가 8명으로 16.3%, 양쪽 다 조금씩, 모두, 제주도 등이 각각 1명씩이었다. 대도시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박물관, 공연 등 문화 체험이 27명, 쇼핑 명소 방문과 유명한 식당 방문이 각각 26명, 역사적 장소나 관광 명소 방문이 23명, 공연 관람이 1명이었다. 반면에 전통문화 도시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는 전통문화 체험이 14명, 역사 유적 탐방과 자연과의 교감이 각각 10명, 사진 촬영과 예술이 9명, 정신적 안정이 8명, 기타가 1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선호 지역이 대도시에 집중된 이유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의 현대 문화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성숙(2023:55)는 해외 학습자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케이팝 등 현대 대중문화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 현상은 한국의 대중문화의 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교육 관계자들이 가진 문화에 대한 태도가 편협한 것에서도 기인한다고 보았다. 또한 김문기(2021:154~155)는 ‘한국문화’가 ‘지역 문화들의 총합’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더 풍부한 한국문화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에 대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필요하다. 특히 안동 지역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바람직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대도시에서만 즐길 수 있다고 여기던 공연이나 스포츠 등 현대 문화들도 지금은 지역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동은 다른 전통 도시보다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의 지역문화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개발된다면 오히려 대도시보다 외국인들의 한국문화 만족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 대도시와 전통문화 도시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



5. 지역문화에 기반한 단기 한국어 과정

현재 한류의 세계화에 힘입어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모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외국인의 한국 여행을 주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고궁이나 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외국인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들은 서울에서의 여행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그곳에서의 한국 문화를 느끼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한 도시를 넘어서 한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안동은 한국에서 가장 전통문화를 잘 간직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영

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한국에서 가장 전통적인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여 대상 지역을 물색한 결과, 안동으로 방문지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방문 당시, 안동 지역 사람들은 여왕의 73세 생신을 기념하여 성대한 생일상을 차려 대접하였고 한국의 음식 문화와 접빈객 문화도 소개하여 여왕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외에도 봉정사와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관람하는 것과 더불어 고추장과 김치 담그는 모습을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여왕이 한국의 전통 주거 문화인 한옥을 방문하였을 때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아직까지도 여왕이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나타낸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또한 안동 지역은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유학을 꽃피웠던 지역으로서 종가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문화적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안동 지역은 외국인들이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를 느끼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과 교육자의 지역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필수적이다.

5.1. 교육 대상 및 교육 목적

최근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힘입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SNS 관계망을 통해서 궁금한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요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었다. 자신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시대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단기 한국어 과정에 참가하는 교육 대상을 한국어의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또한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단기 한국어 과정은 지역의 문화와 연계한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한국 방문 중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지역의 문화 체험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통해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과 한국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교육 목적을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으로 나누지 않고 수업 시간에 습득한 한국어를 사용하여 문화 체험을 하면서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문화 체험의 정의에 대해 논의했던 김성숙(2023:53)의 연구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³⁾

이에 따른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에 사용 가능한 한국어를 익혀 주어진 상황에서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둘째, 주어진 문화 체험 환경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상황에 따라 한국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고취시킬 수 있다.

5.2. 교육 시수 및 교수요목 유형 설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기 한국어 과정은 안동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어 수업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기능 중심 교수요목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실제 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어휘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기능면으로 인사하기, 소개하기, 일상생활 말하기, 음식 주문과 맛 표현하기, 교통 시설 이용하기(버스, 택시), 쇼핑하기(편의점/대형마트/시장), 요청하기, 약속하기, 제안하기, 초대하기, 수락/거절하기, 경험 표현하기, 길찾기, 희망 표현하기, 금지 표현하기 공공시설이나 공연의 관람, 여행하기, 숙박 시설 이용하기, 한국 생활에 편리한 앱 사용하기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교육 대상은 초급 수준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단기 한국어 과정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대부분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과정의 한국어 수업은 대상

3) 김성숙(2023)은 문화체험이란 일상의 시공간을 벗어나 동경하는 문화적 맥락 안에 현존하며 타자로 살아보는 행위를 가리키며 체험자는 별도 규범을 따르는 경계(금, 담) 안으로 들어가 일정 시간 동안 낯선 상황이 요구하는 행위나 발언을 수행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 문화체험은 한국이라는 선망의 시공간에 있음으로 인해 설레는 경험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라 정의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을 초급 수준의 참가자로 하고, 한국어 수업과 안동 지역의 문화 체험 수업을 연계시켜 안동 지역의 문화 체험 활동에 필요한 기능과 어휘 및 표현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5.3. 교육 내용 선정 및 배열

한국어교육 시수는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1일 3시간 전체 4주로 하여 총 60시수로 한다. 보통 초급 한국어교육 시수는 1급이 200시간, 2급이 200시간 총 400시간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제시하고자 하는 단기 한국어 과정에서의 한국어 수업은 시수로 볼 때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초급 과정 중에서도 문화 체험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어휘와 표현에 집중하도록 한다.

상황 및 주제는 말하기와 듣기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읽기를 덧붙여 실제로 문화 체험을 할 때 접하게 될 안내문이나 초대장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 체험을 하면서 실제로 접하게 될 상황을 중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교육하도록 한다. 과제는 문화 체험 시간에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구성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의 기능을 익히도록 한다. 이때 사용하는 어휘와 표현은 서울대 한국어 초급에 제시된 목록을 기초로 그날의 문화 체험 수업에 필요한 어휘와 표현으로 구성한다. 문화 요소는 모두 지역 문화 자료로 구성하고 활동 위주의 문화 체험을 통해 현장에서의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5.4. 교수 방법

여기에서는 의사소통 교수요목을 기반으로 상황-문맥 교수요목을 수업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단기 한국어 과정의 목표가 체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실 수업은 문화 체험 상황을 기반으로 ‘도입(문화 체험 관련 시청각 제시)-전개(문화 체험 경험을 준비하는 어휘 및 표현 익히기)-활용(문

화 체험 주제와 관련된 활동)-마무리(실제 문화 체험 현장의 안내 및 설명)’의 단계로 먼저 어휘와 표현을 익히고, 다음으로 제시된 대화문을 연습하도록 하고 이것이 문화 체험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대화문이 되도록 최대한 체험 현장을 적용한다.

학습 주제와 연관된 오후의 문화 체험 수업은 오전 수업에서 주어진 활동지를 바탕으로 활동이 진행된다. 오후의 활동을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동행한 조력자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5.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한 단위 설계

단위는 일주일에 5일 4주로 구성하여 오전 교실 수업 3시간과 오후 체험 활동 2시간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교실 수업이 매일 3시간씩 5일 총 60시간이며, 체험 활동은 매일 2시간 5일 총 40시간 실시된다. 따라서 단기 한국어 과정 수업 시수는 총 100시간으로 하고, 체험 활동은 안동의 전통문화의 내용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5.5.1. 단위 구성의 단계

오전에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은 모두 100시간의 수업으로 구성하는데 금요일은 주로 관광지 현장학습으로 구성하였다. 매일 오후에 이루어지는 체험 학습은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관광지 방문 체험의 경우에는 금요일 오전과 오후 5시간 모두를 활용하도록 한다. 이는 체험 수업에 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를 간직한 안동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체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4주로 구성한 단기 문화 체험 중심 한국어교육 과정이다.

<표 7> 문화 체험 중심의 단기 한국어교육 과정 일정

1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09:00~12:00)	한글 익히기 1	한글 익히기 2	인사하기	자기소개	안동의 관광지1
오후 (14:00~16:00)	환영식 및 한글 관련 활동	교내 한글 사진찍기	생활 환경에서 사람들과 인사하기	한국 친구와의 만남/자기 소개	역동서원과 임연재 종택

2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09:00~12:00)	한복	안동의 식생활 헛제사밥	안동의 의생활 삼베	안동의 교통	안동의 관광지2
오후 (14:00~16:00)	한복 입기, 입는 방법 느낌 표현하기	식당 방문 및 음식 체험	삼베 손수건 염색	교통편을 이용해서 과제 완성하기	월영교

3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09:00~12:00)	안동 탈춤	K-POP 노래와 춤	안동의 드라마와 영화	안동의 미술	안동의 관광지3
오후 (14:00~16:00)	안동 탈춤 배우기	노래와 춤 배우기	촬영지 방문하고 역할극 촬영	단청 및 민화 그리기 체험	도산서원/ 선성수상길

4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09:00~12:00)	전통 놀이	전통 음악	한옥 체험	안동의 관광지4	수료식
오후 (14:00~16:00)	전통 놀이 도구 만들기, 놀 이 방법 알고 놀이	전통 악기 배우기	한옥의 구조와 특징/촬영	하회마을	

5.5.2. 단원 모형의 수업 설계

여기에서는 둘째 주 화요일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 설계를 하였다. 수업의 주제는 ‘안동 식생활, 헛제사밥’이며 활동 내용은 ‘안동 헛제사밥을 통해 안동의 제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음식 주문하기’이다.

안동 헛제사밥에 대한 정설은 없지만 많은 이야기 중의 하나는 옛날에 유생들이 밤에 허기가 지면 하인들을 시켜 제사가 있다고 하고 제삿밥을 준비하게 하여 먹었다는 것이다. 이는 안동 지역에서 행해지는 제사가 중요한 일상이었기에 헛(가짜)제사밥도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는 안동의 제사에 나오는 음식을 체험하면서 안동 지역에서 제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교수-학습 목표	안동의 헛제사밥의 유래와 특징을 알고 안동의 식생활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다. 식당에서 음식의 특징과 먹는 방법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교수-학습 상황	안동 지역 음식으로 유명한 ‘안동 헛제사밥’ 식당에서 음식의 유래와 특징 확인하기, 주문하고 먹는 방법 질문하기, 계산하기
교수-학습 내용	안동 음식의 특징, 음식 주문하기, 먹는 방법 질문하기, 계산하기
교수-학습 자료	PPT 및 시청각 자료
교수-학습 시간	오전 09:00~12:00

교수-학습 목표	안동 음식에 대한 유래와 특징을 알고 안동 문화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먹는 방법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교수-학습 상황	안동 지역 음식으로 유명한 ‘안동 헛제사밥’ 식당에서 음식의 유래와 특징 확인하기, 식당에서 주문하기, 먹는 방법 질문하기, 계산하기
교수-학습 내용	안동 문화의 특징, 음식 주문하기, 먹는 방법 질문하기, 계산하기
교수-학습 자료	PPT 및 시청각 자료
교수-학습 시간	오전 09:00~12:00

	학습 항목	교수-학습 내용	준비물
도 입	동기 유발 및 학습 목표 제시	안동의 제례 문화가 내포되어 있는 음식인 ‘안동 헛제사밥’ 을 사진 및 동영상 자료로 제시하고 질문/대답한다.	PPT, 사진, 음식 주문 동영상
전 개	안동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음식 주문에 필요한 어휘와 표현	1. 안동의 제례 문화에 대한 어휘를 익 힌다. (제사, 서원, 헛제사밥) 2. 음식 주문과 계산에 필요한 어휘를 익힌다. (헛제사밥, 먹다, 나누다, 숟가락, 젓가락. 하나, 둘, 셋, 넷, 백 원, 천 원, 오천 원, 만 원, 오만 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 음식 주문과 계산에 필요한 표현을 익힌다. (메뉴 좀 주세요, N이/가 뭐예요?, V-(으)세요, N을/를 좋아해요, N하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4. 음식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화 를 듣고 익힌다. 음식 주문에 대한 대화를 듣는다.	PPT
활 용	대화 만들기, 역할극하기	조별로 안동 헛제사밥 식당의 상황에서 제 시된 대화문을 중심으로 역할극을 한다. (실 제로 안동 헛제사밥 식당의 메뉴판을 준비)	역할극 대화문
마 무 리	어휘와 표현 정리하기, 오후 체험에 대한 안내	발표한 역할극을 보고 필요한 어휘와 표현 을 정리한다. 안동 헛제사밥 식당에 대한 정 보를 확인한다.	식당 지도 및 전화번 호

6. 나가는 말

이 연구는 장기 체류형 한국어 학습자가 아니라 단기로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단기 체류형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안동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단기 한국어 과정을 설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에 거주 중인 학문 목적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 한국어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동 지역을 바탕으로 단기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언어 지식 중심의 한국문화 프로그램이 아닌 문화 체험 현장이나 상황에 중점을 두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단기 한국어교육 과정의 문화 체험 주체가 지역의 문화 체험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안동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문화 체험 상황으로 문화 체험을 구성하였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 체험지로서 안동은 대도시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전통문화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 되리라고 본다. 거기에다가 안동에는 국립대학교 안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기관이 있어서 단기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능력 차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문화 체험 활동 목록 구성에 대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지역 문화를 활용하여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문화 체험 중심의 단기 한국어교육 과정으로 설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Abstract>

CHOI JONG SOOK, 2023, A Study on Short-Term Korean Language Education Strategies Using Local Culture,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Vol. 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short-term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at teaches the Korean language necessary for short-term foreigners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using local culture. This is to design a Korean language program suitable for them, reflecting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ers visiting Korea after COVID-19 and the demand to enjoy Korea in the short term than the previous demand for studying abroad.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foreigners residing abroad. The survey investigated the content and time of the short-term Korean language curriculum, opinions on the subject of learning and experience activities, desired expected effects, and the region and reason you want to visi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 short-term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the traditions and living culture of Andong was presented. This education program is meaningful in that it designed Korean language classes that can be used with an emphasis on the cultural experience field and situation, and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develop a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centered on local cultural experiences by designing a short-term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using local culture.

Key words: short-term Korean language education, local culture, Andong culture, short-term Korean language course

<참고 문헌>

- 김문기 외(2021), 지역문화 자료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의 교수-학습 내용과 활동 개발 연구, 한국학 44-4, 한국학중앙연구원, 153-186쪽
- 김성숙(2023), 한국어교육의 문화체험 수업 현황과 개선 방안 : COVID19 전후 대학부설기관의 정규교육 과정 조사를 중심으로, 비교교과교육연구 4-1, 한국비교교육학회, 49-71쪽
- 박선옥 외(2011), 한국어 단기과정 현황 분석 및 교수요목 설계 -학습자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어문론집 46, 민족어문학회, 163-187쪽
- 박소연(2016),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단기 교육 과정 내용 개선 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 일본인 대상 단기과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어언문화학 13-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59-83쪽
- 박정근(2020),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연구=강릉 단오제를 중심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다정(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현장 체험 중심의 문화 교재 개발 방안, 한국어교육 2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1-110쪽
- 신용재(2008),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단기과정 교수요목 설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기정, 권순희(2020), 문화 체험 프로그램 중심의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국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09-138쪽
- 안선영(2014), 여행 목적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국외 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경희사이버대 석사
- 안희은(2022), 지역 문화 특성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4-1, 한국다문화복지학회, 145-165쪽
- 유숙영(2002), 단기 한국어 연수 과정의 프로젝트 중심 수업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57-174
- 전은주(2013), 한국어 교육과 로컬리티, 한국어언문화학, 10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53-181쪽
- 전혜경(2006), 한국어 문화수업 교수요목 구성 방안 연구-단기과정을 위한 현장학습을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여훈 외(2020), 한국어 학습 목적에 따른 단기 한국어 교육 과정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육 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369-393쪽

정지혜(2010),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체험학습 방안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차운정(2019), 한국어교육에서 지역 자료를 활용한 역사문화교육 방안-부산 지역 유학
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말연구 59, 우리말학회, 203-227쪽
최재민(2017), 한국어 단기교육 과정 교재 개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통계 자료

2022년 국제인구이동통계, 통계청

<필자 소개>

이름: 최종숙

소속: 국립안동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 강사

전자우편: marychoil@naver.com

접수 일자: 2023. 12. 04.

심사 일자: 2023. 12. 06.

게재확정 일자: 2023. 12. 16.